



야구 국가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10일 도쿄돔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에 앞서 대만전(12일)이 열린 일본 지바현 조조마린스타디움을 방문해 경기장 환경을 두루 살폈다. 관중석에 앉아 취재진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김 감독. 자매(일본) | 정은성 기자

김경문 감독의 필승 다짐 “당장 미국전만 생각할 것”

“목표는 우승이다.”

한국 야구국가대표팀을 지휘하는 김경문 감독(61)이 향하려는 목적지는 확고하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연패를 달성해 2020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손에 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10일 일본 도쿄돔호텔에서 열린 대회 슈퍼라운드 6개국 감독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6~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예선라운드(C조)에서 3연승을 달렸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본에 입성했다. 김 감독은 “한국에서 전승을 하고 왔지만 그 경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슈퍼라운드에 올라온 팀 모두가 우승할 힘을 갖겠다”고 경계했다. 이어 “팀 분위기가 좋다. 초반부터 매 경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의 위치에 있다.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된 프리미어12에서 초대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를 부담감이 아닌 자신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김 감독은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히면서도 “2연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 따라오는 것이 승리다. 선수들, 코칭스태프와 즐겁게 경기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미국과의 첫 대결을 시작으로 12일 대만, 15일 멕시코 등 경쟁한 상대를 차례로 만난다.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대만, 호주보다 높은 성적을 내야 하지만 대표팀은 당장 눈앞의 상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감독은 “양현종이 미국전 선발이다. 우선 미국과의 경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랭킹은 경기가 모두 끝났을 때 결과로 나온다. 대만과 호주 쪽보다는 미국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퍼라운드 첫 상대인 미국에 대해서는 “예선 3경기에서 홈런을 10개 때렸다”고 짚으며 “배터리가 미국의 장타를 봉쇄해야 한다. 배터리가 미국의 장타자를 잘 막을 것이라 본다”고 믿음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전 선발로 우안 코디 폰스를 내정했다. 폰스는 예선라운드 네덜란드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최소 3승 전략... ‘원투펀치’로 승부 본다



김 감독 “최소 3승 거둬야 우승 가능” 양현종 미국전...김광현 대만전 출격 결승 진출엔 꼭 ‘양-김’으로 총력 조별리그 무실점 삼진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들의 어깨에 한국 야구 대표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양현종(31·KIA 타이거즈)과 김광현(31·SK 와이번스)이 일본 슈퍼라운드에서도 원투펀치로 활약한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은 9일 대회 슈퍼라운드 출전을 위해 일본 도쿄에 입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경문 감독(61)은 “이번 슈퍼라운드에서 (4게임 중) 최소 3승은 거둬야 한다. 그 라이조별 예선에서 얻은 1승을 더해 결승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슈퍼라운드에서는 같은 조별 예선에서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하지 않는다. 대표팀은 C조 2위로 진출한 호주를 상대로 이미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슈퍼라운드를 시작한다.

11일 미국전을 시작으로 12일 대만, 15일 멕시코, 16일에 일본을 차례대로 만나는 일정이다.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최국 일본을 제외한 대만과 호주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전력을 다한다. 선봉은 또다시 양현종과 김광현이 나눠 맡을 예정이다. 양현종은 앞서 호주전에서 6이닝 10삼진 무실점 완벽투로 이번 대회 한국의 첫 승을 이끌었고, 김광현 역시 이어진 캐나다전에서 6이닝 7삼진 무실점 호투로 대표팀의 2연승을 견인했다.

김 감독은 10일 대표팀 훈련이 진행된

날짜	시간	대진	장소
11.11(월)	12:00	대만-멕시코	지바 조조마린 스타디움
	19:00	호주-일본	스타디움
11.12(화)	12:00	미국-한국	도쿄돔
	19:00	호주-멕시코	도쿄돔
11.13(수)	12:00	미국-일본	지바 조조마린 스타디움
	19:00	대만-한국	스타디움
11.15(금)	12:00	호주-미국	도쿄돔
	19:00	멕시코-일본	도쿄돔
11.16(토)	12:00	대만-미국	도쿄돔
	19:00	멕시코-한국	도쿄돔
11.17(일)	12:00	호주-대만	도쿄돔
	19:00	한국-일본	도쿄돔
		3·4위전	
		결승전	

* 앞쪽에 선풍, 일본은 전 경기 1루 덕아웃 사용

지바현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두 투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양)현종이와 (김)광현이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정규시즌을 마친 뒤 피곤한 몸 상태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다. 감독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대라 동기부여가 분명하다는 게 바로 김 감독의 설명이다. 김광현은 대만전 출격이 유력한데, 조별예선에 이어 다시 한 번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은 마지막 피날레까지 함께 활약을 이끈다. 대표팀은 두 투수를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슈퍼라운드 4선발 체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14일 일본전에는 양현종~김광현~박종훈이 아닌 4번째 선발투수가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계획대로 승리를 쌓아 17일 결승전에 오르면 양현종과 김광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마운드에 함께 오를 수 있다. 1년 뒤 올림픽을 위해 다시 도쿄로 돌아가려면 두 원투펀치의 힘이 절실하다. 자바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야구 국가대표팀 두 좌완 에이스 양현종(왼쪽)과 김광현은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도 원투펀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령탑과 동료들의 굳은 믿음 속에 팀 승리를 책임지는 둘의 어깨에 2020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있다. 스포츠동아DB

도쿄 특명 “미국 ‘4인의 홈런타자’를 묶어라”

아델·볼·달백·크라츠 등 예선 홈런쇼 미국전 선발 양현종 봉쇄전략 큰 관심 김경문 감독 “우리도 장타 터질때 됐다”

선수	타율	타수	안타	홈런	타점	볼넷	삼진
조던 아델	0.308	13	4	1	3	0	6
아델 볼	0.250	12	3	1	3	0	1
로버트 달백	0.364	11	4	2	6	2	3
에릭 크라츠	0.625	8	5	2	3	1	0

한국 마운드는 예선에서 평균자책점 0.33을 기록했다. 뛰어난 방패임이 분명하지만, 미국의 ‘대표’를 경계하지 않을 순 없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

프리미어12에 출전한 야구대표팀은 11일 미국전을 시작으로 슈퍼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메이저리거들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힘 있는

타자들이 즐비하다.

미국은 예선라운드를 2승1패, A조 2위로 통과했다. 그러나 화력만은 예선에서 나선 어떤 팀들보다 강했다. 예선 3경기에서 무려 10홈런을 날리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네덜란드와의 첫 경기부터 4홈런을 터트리며 9-0으로 승리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도 4홈런을 앞세워 10-8로 이겼다. 2-8로 패한 멕시코전에서도 2점을 모두 홈런으로만 뽑았다.

최고 경쟁대상은 역시 베테랑 포수 에릭

크라츠(39)다. 예선 성적이 타율 0.625에 2홈런, 3타점이다. 주로 하위타선인 8번에 배치됨에도 중심타선 못지않은 화력을 뽐냈다. 3번 1루수를 맡는 로버트 달백(24)도 타율 0.364, 2홈런, 6타점의 호성적을 거뒀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미국이 홈런을 많이 치긴 했더라. 우리는 예선에서 한 개도 안 나왔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는 뜻이다. 시원한 타격을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11일 미국전 선발로는 ‘에이스’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나선다. 이번에는 어떤 투구패턴으로 미국의 힘 있는 타자들을 봉쇄할지 관심이 쏠린다.

자바 | 정은성 기자

미국 경쟁대상 1호는 ‘39세 베테랑 포수’ 크라츠

풍부한 경험으로 특급 유망주들 리드 조별리그 3경기 2홈런 타격서도 펼칠



크라츠

미국은 메이저리거가 주축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를 제외한 주요 국제 대회에 빅 리그 40인 로스터 선수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소홀히 대표 선수를 선발하지는 않는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역시 각 팀이 애지중지하는

특급 유망주가 대거 포함됐다. 명단을 살펴보면 우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느껴진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미래 에이스로 꼽히는 스펜서 하워드는 시속 150km 중반 빠른 공에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리고 각도가 좋은 커브를 갖고 있다. MLB닷컴 선정 유망주 순위 88위, 팀 내 순위는 2위다. 시카고 화이트

삭스 내야수 앤드류 본은 2019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 지명을 받았다. 사이닝 보너스가 무려 72만 1200달러다. 화이트 삭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올해 스무 살인 LA 에인절스 조아멜은 유망주 랭킹이 가장 높은 5위다. 보스턴 레드삭스 1라운드 지명을 받고 트리플A까지 오른 테너 하우크는 불펜 핵심 전력이다. 중심타자 역할을 맡은 로버트 달백(보스턴 트리플A)은 홈런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역시 빅리그 콜업을 앞둔 핵심

자원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름은 포수 에릭 크라츠다. 1980년생으로 마흔을 앞두고 있다. 젊은 미국 대표팀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수들을 이끌고 있다. 운화하지만 열정적인 성격으로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도 맡았다. 빅리그 316경기, 마이너리그 1027경기 출전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전형적인 수비형 백업 포수지만, 조별예선 3경기에서는 8타수 5안타 2홈런을 기록하며 타격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